

# 데이터베이스 이용요금 회수 대행제도

홍용표

한국통신 하이텔사업국장

정보요금회수대행서비스가 금년 하반기중에 INFOSHOP이라는 서비스명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PC통신 01410 통신망은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통신처리장치(CPS, Communication Processing System)를 지난 5월 22일에 전국 전화국에 15,000포트에 달하는 대용량 전국망 시스템으로 설치 완료 하였다. 이 CPS는 전화망과 무손실·무잡음으로 접속하여 최상의 PC통신 품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화국 단위로 T1 (E1)트렁크 접속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모델 일체형 구조로 설계된 고속의

통신속도인 14,400 BPS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행하게 될 정보료회수대행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탄력성 있는 PC통신 요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C통신 요금은 보통 전화요금, 패킷통신료, 정보이용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구간의 요금이 지금까지는 고정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PC통신 활성화에 적잖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정보이용료를 256개의 과금등급으로 구분하여 정보별 가치에 따라 차등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정보이용자와 정

보제공자에게 이용료를 현실화시켰으며, 정보사용=유료라는 등식의 접근이 성취되어 기술적 또는 제도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굴곡되었던 정보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신요금인 전화요금이나 패킷통신요금의 적용방식도 현재의 고정된 3분3분제 방식에서 변형된 최초/추가 3분제 또는 3분1분제-최초 3분 사용후에 추가 1분단위로 하여 과금하는 방법-의 적용이라던가, 전화요금과 패킷통신요금을 일괄하여 PC통신료라는 별도의 요금으로 과금고지하는 방식등의 다양한 요금제도의 활요이 가능해졌다.

CPS도입은 지금까지의 PC통신 가입제 방식 개념에서 벗어나 PC통신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가입절차 없이 전화 가입자는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제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5000포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업자나 16포트 소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사업자나 관계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PC통신 인구인 100만 이용자가 자기의 가입자로서, 관리되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산업 사회에 철저한 경쟁의 시대를

몰고와 향후 부실한 데이터베이스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정보료회수대행을 위해 설치된 통신처리장치(CPS)에서 IP별 정보료를 이용자의 전화번호에 통합하여 과금하며, 그 과금 기준은 분당, 세그먼트당, 횟수당으로 가능하며 IP는 이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료는 정보군별로 정보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내에서 IP가 자율적으로 정보료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료는 일반 전화요금청구서의 정보이용료란에 합

산하여 청구된다.

당월 수납된 정보는 IP별로 수납 익월 말일까지 Online입금으로 회수대행 수수료를 제하고 난 정산금액을 지급하는데 대행 수수료는 회수대행정보료의 10~15선에서 현재 검토중이며 이러한 대행서비스를 받기위한 IP는 VAN사업자로 사업허가를 받은 후 한국통신에서 제정 공시가 IP프로토콜을 탑재한 후 최종 준공시험을 거쳐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DK**

